

News and Topics

2010. 4. 8

4 월 상순부터 지치부 히츠지야마공원의 “지면패랭이꽃”이 절정을 이룹니다.

지치부의 히츠지야마공원은 오쿠지치부와 조신에즈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지치부 시가지에 인접한 조금 높은 언덕에 펼쳐진 공원으로 간토지방에서도 손꼽히는 지면패랭이꽃의 명소입니다. “패랭이꽃 언덕”은 공원 남쪽에 있으며, 부코산을 등지고 약 17,600 평의 대지에 9 종류 4 천 그루 이상의 지면패랭이꽃이 심어져 있어 4 월 상순부터 5 월 상순의 꽃피는 시기에는 일면 가득 꽃 용단이 펼쳐집니다.

동쪽에서 바라본 형형색색의 지면패랭이꽃으로 물든 경사면은 밤 축제로 유명한 지치부 요마즈리의 포장마차나 가사보코(우산모양의 큰 지붕에 창, 조화 등으로 화려하게 꾸민 축제용 들것)을 메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주반(일본 전통 속옷)의 무늬와 역동감을 디자인한 것 같은 그야말로 “꽃의 패치워크”라 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히츠지야마공원 내에는 무나카타 시코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 “야마토 아트뮤지엄”이나 부코산자료관, 보쿠스이 폭포 등 각종 전시 시설과 볼거리들이 있어 지면패랭이꽃을 감상하면서 따뜻한 봄날을 즐길 수 있습니다.

세이부철도에서는 이 지면패랭이꽃이 절정을 이루는 4 월 15 일(목)~5 월 5 일(수, 공휴일)에 특급 레드애로우(Red Arrow)와 임시열차를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.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지치부에 와 보세요.

<지면패랭이꽃 언덕>

입장료(꽃 절정기에 한함) 300 엔

입장시간 8 시~17 시

교통 세이부철도 요코제역 또는 세이부지치부역에서 도보 15 분